

■ 2026년도 예술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공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예술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공모 문학/음악/연극·뮤지컬 분과

○ 회의일시 : 2026년 6월 4일(목)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태암, 백다흠, 이수정, 제상아, 최윤우

2026년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 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 환경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청년 인력 고용을 통한 예술단체의 활동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시공모에서는 민간 및 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획·경영, 창작·실연, 무대기술 분야의 인력을 지원해 왔으며, 문화예술계 전반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 예술가의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2026년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 추가 공모 지원사업은 위와 같은 본 지원사업의 성과와 예술 현장에서의 확장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추가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정시공모와 달리 기획·행정, 무대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창작·실연 분야로 특화하여, 대내외적 위기 속 창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추가 공모 지원사업 문학/음악/연극·뮤지컬 분야’에서는 문학 2개 단체 4명, 음악 67개 단체 178명, 연극·뮤지컬 82개 단체, 202명 등 총 151개 단체에서 384명의 인력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음악 3개 단체, 연극·뮤지컬 3개 단체를 제외하고 총 145개 단체 368명을 대상으로 지원단체의 활동 실적, 운영 역량, 2026년도 하반기 활동 계획의 구체성, 청년 인력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과정으로는 1차 심의위원들의 신청 서류 전수 검토와 개별 평가로 예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심의위원 제척·회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동점자 우선 기준을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으며, 2차 대면 심의에서는 심의 기준으로 제시된 정량평가(90%)와 정성평가(10%)를 반영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가 공모 지원사업의 경우 정시공모와 달리 정량평가 항목의 비율을 낮췄습니다. 단체의 고용 환경, 즉, 청년 인력 업무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인력 비율 및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으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행정 결격 단체 및 최소 요건 미충족 단체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정성평가는 사업수행 역량(활동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 수행 인력의 적절성, 인력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직무의 구체성, 청년 인력 성장 기여도, 2026년도 하반기 활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 단체의 과거 실적과 예술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단체의 인력 운용 계획이 신청 인력의 직무와 역할에 부합하는지, 단체의 활동을 통해 인력의 경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심의 기준이었습니다. 장애인 채용 신청단체의 경우,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 선정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채용 계획으로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필수서류인 장애인 채용계획서가 첨부되지 못해 선정에서 제외된 단체도 일부 있었던바,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검토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시공모 대비, 창작·실연 직종으로만 공모가 진행되는 추가 공모사업의 특성상 신청단체가 제시한 사업 계획과 청년 인력의 직무 연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청년 예술 인력의 실제 역할 및 투입 직무가 예술 활동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활동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장기적으로 예술 기반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신청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예술 인력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술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환경이 적합한지, 무엇보다 청년 인력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책임자 배치와 멘토링 구조가 갖춰져 있는가 하는 여부도 주요 기준이었습니다. 하여, 청년 인력의 직무가 단순 보조 업무 중심이 아닌 실질적 실무경험의 기대 요소가 명확한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심의가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공모로 진행된바, 기 선정단체의 추가 지원뿐 아니라, 신규 단체의 선정 및 인력 배치 비율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 역시 예술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문학, 음악, 연극·뮤지컬 분야 통합 심의위원회에서는 단체의 운영 역량과 청년 인력 활용 계획이 사업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가 공모 사업 문학, 음악, 연극·뮤지컬 분야에서는 공립단체로 문학 분야 1개 단체 2명, 연극·뮤지컬 1개 단체 1명으로 총 2개 단체 3명을 선정하였으며, 민간단체로는 문학 분야 1개 단체 2명, 음악 분야 52개 단체 66명, 연극·뮤지컬 분야 61개 단체 71명 총 114개 단체 13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전체 총 116개 단체 142명의 인력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의 경우 사업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었으며, 창작·실연 직종의 업무 계획 및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 예술 인력의 경력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실무 교육 계획의 실현 가능성, 실무 환경 등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강점이었습니다.

예술기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예술인의 취업 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청년 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예술단체의 창작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다년간 이어져 온 대표적인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정시공모 외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 공모가 진행될 만큼, 본 사업이 청년 예술인뿐 아니라, 단체의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그 간의 성과를 방증하기도 합니다.

다만, 단체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청년 인력이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공모의 직종이 창작·실연 분야로 특정되어 공고되었으나, 창작 활동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보다는 기획 업무나 사업의 단순 보조 역할로 제시된 사업 계획이나, 상근 인력 구성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1회성 또는 단기 활동으로 계획 되거나, 필수서류가 누락 되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가 많았던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덧붙여, 본 사업이 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